

종교·복지

돈 대신 이웃들의 정 듬뿍 '품앗이' 통해 희망 쌓는다

광주 여성노동자회 대안화폐 운동 '희망 품앗이'

“요즘은 마음마저도 돈으로 표현해야 할 때가 많죠. 돈과 희망을 만드는 '씨앗'을 함께 키워주세요?”

1일 오후 광주여성노동자회(회장 주경미·이하 노동자회) 강당에서는 지역 최초로 대안 화폐운동인 '희망 나눔 품앗이'(이하 품앗이)의 결성식이 열렸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품앗이에 참여하기로 한 회원 20여 명이 모여 공동체 화폐인 '씨앗'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해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서로 계획을 말했다. '씨앗'은 진짜 돈이 아닌 일종의 가상화폐로서 능력을 교환할 수 있는 공동체

화폐를 말하며 '씨앗'의 거래 내역을 '광주 희망 품앗이 통장'에 기록하면 된다.

“저는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김치를 잘 담궜어요' '저는 성실해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살이 찌서 못 입는 옷들이 많은데...' 등 저마다 내세운 재능과 물품들은 달랐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싶다는 마음만은 하나로 통했다.

가정관리사인 이경희(46·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씨는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는 소비활동을 돈이 아닌 서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품앗이는 일종의 지역화폐운동을 말한다. 품앗이 회원들끼리 통용되는 공동체 화폐인 '씨앗'을 통해 이웃과 재능이나 물품을 주고 받는다. 종류는 보육, 간병, 가사도우미, 음식 마련 등 서로 가진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얼마든지 다양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치를 잘 담근다는 사람이 자신이 담은 김치를 내놓거나 김치 담는 방법을 전해주고 '씨앗'으로 받고, 김치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씨앗'을 주고 김치를 사면 된다.

품앗이는 대안화폐운동인 '레츠'(LETS·Local Exchange Trading



지난 1일 '희망나눔 품앗이' 결성식에 참가한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이 '씨앗' 거래 내역이 적힌 '광주 희망 품앗이 통장'을 보여주고 있다.

System)에서 착안했다. '레츠'는 캐나다의 마이클 린턴이 1983년 착안한 지역 대안화폐 운동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천500개 단체, 1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선 1998년 3월 시민단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FM(Future Money)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첫 단추를 꿴다. 이후 불교 환경교육원의 '두레', 녹색연합의 '작아 장터', '과천 품앗이', 대전의 '한발레츠', 구미의 '사랑그리운행' 등의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중 2001년 4명으로 출발한 '과천 품앗이'는 '가족친화 공동체'로 가장

성공적인 레츠로 꼽히고 있다. 거래 품목은 자녀 학습, 예·체능, 먹을거리, 육아, 가사, 이·미용, 카풀 및 차량 수리 등 비교적 단순한 내용부터 의류, 다도, 편직, 세무 등 전문적인 품목까지 다양하다.

주경미 광주여성노동자회장은 “품앗이 활동은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이웃 간 정이 되찾는 운동”이라며 “희망나눔 품앗이' 활동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 칼럼



박병주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면대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해.../ 시인 이육사가 읊었던 칠월이다. 청포도를 입고 찾아온 손님을 기다리며 노래했던 한 시인의 희망을 본다. 원망과 불평으로 찌그러지는 시대에 '하이얀' 모시 수건에 덮인 식탁 위 은쟁반에 감사의 청포도를 마련 하겠으면 한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다. 한 마을에 아무런 조건 없이 매일 만원씩 나눠 준 뒤 결과를 관찰해보는 것이었다.

처음엔 집집마다 들러 만원씩 놓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 마을사람들도 의아해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환관 입

감사하는 마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골목을 지나 지나 마을 사람들은 두렵대기 시작했다.

심지어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왜 내 돈 만원을 안줍니까?'라고 따지면서 화를 냈다. 어느새 마을사람들에게는 매일 만원씩 받는 일이 당연한 권리가 돼 있었다.

우리는 공기가 있어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흙이 있어 담고 설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직장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적은 보수나 부족한 근무환경도 개의치 않고 고마움을 느끼며 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맙게 여겼던 것을 당연하게 느낀다. 오히려 더 잘해 주지 않는다면 불만들을 털어놓기도 한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모든 것이 늘 곁에 있으리라는 생각,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하는 권리라는 착각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계약서를 쓰고 태어나지 않았다. 내 심장과 허파가 70~8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작동해 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이 아니다. 설명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도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내가 가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 감사하고 지구촌 곳곳이 빈곤과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풍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마음을 갖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삶을 행복하게 한다. <광주 열린교회 담임 목사>

주경스님 특강

6일 나주 심향사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스님)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강릉 성원사 행수 주경스님을 초청, '월 다윈-그 아름다운 시작'이란 주제로 특강을 마련한다.

광주불교환경연대 사찰 생태기행

참가 신청 17일 마감

생명, 생태, 환경,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4월 문을 연 광주불교환경연대가 생태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생태프로그램은 도심 속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일 순천 선암사에서 생태전문가와 함께 사찰 생태기행을 떠난다.

이번 기행에서는 사찰과 사찰 주변

의 숲 생태를 체험해보고 명상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어린이·청소년 1만5천원, 성인 2만5천원.

또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1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생태학교는 아름다운 부도도 품는 철갈선사 부도담이 있는 화순 쌍봉사에서 진행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장애우에 자신감을...수련캠프 잇따라

장애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캠프가 잇따라 열린다.

한국실로암선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완도 전남청소년수련원에서 '홀로 그리고 더불어'라는 주제로 '제28회 실로암 가족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서 송준용 십대선교회 명예이사장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특강을 하고 가족별모임, 캠프음악회, 우리들의 약속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siloam76.or.kr)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6만원. 문의 062-672-7782.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마음 재할캠프'를 연다.

전남대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23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문의 061-336-4105.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디딤돌 장애인 야학 개소

장애인들의 배움터인 '디딤돌장애인야학(교장 김동효)'이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치동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자원봉사자인 11명의 교사와 장애인 4명이 참여하는 디딤돌 장애인 야학은 한글 및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대비를 위한 수업을 진행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독교 대안학교 월광초교 교사 모집 합니다

19일 접수 마감

광주지역 최초 기독교 대안학교인 월광초등학교가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직원을 모집한다.

월광초등학교는 내년 3월 문을 열며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담임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강

사, 행정실 간사 등을 모집하며, 초등 담임교사 지원자격은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기독교 교육에 헌신할 뜻이 있는 세례교인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원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페이지(www.wk22.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대학졸업증서, 세례교인 증명서(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등과 함께 이메일(mjma2000@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375-040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chebi Man (하체비만) featuring a woman's legs and text about a clinic and NAVE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old and Silver Real Estate (금당부동산)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